

열 번째 식용곤충 ‘폴무치’

벼메뚜기보다 사육 기간 짧고 사료 효율 2배 이상 좋아 식약처, 8개월 걸쳐 안전성 등 심사 새 식품 원료 인정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3일 ‘폴무치’를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

전래적 식용 곤충으로 식품 원료가 된 벼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애벌레, 번데기) 3종과 농촌진흥청 연구성과로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겨저리 애벌레와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2014년), 장수풍뎠이 애벌레와 생별귀뚜라미(2015년), 아메리카 왕겨저리 애벌레(달치 분말)와 수벌 번데기(2020년)

에 이어 열 번째다. 이는 식용곤충 사육 농가가 증가하면서 식품 원료로 인정해 달라는 농가 요청에 따른 것이다.

폴무치는 식용곤충인 벼메뚜기와 같은 메뚜기목 메뚜기과로 벼메뚜기보다 약 2배 이상 크고 사육 기간은 절반 정도로 짧으며 사료 효율이 2배 이상 좋아 생산성이 뛰어나다.

또한, 단백질(70%)과 불포화지방산(7.7%)이 풍부해 식품 원료로서 가치가 높아 파자·선식 등 다양한 식

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은 약 2년에 걸쳐 폴무치의 특성 영양성 독성 등 위해성 평가를 비롯해 제조 공정 표준화 등을 연구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 8개월에 걸쳐 안전성 등을 심사해 폴무치를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남성희 과장은 “곤충은 온실가스 배출 대기와 수질 오염 등을 적게 발생시키는 환경친화적 특성으로 ‘2050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 정책’에 맞는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며 “폴무치가 식품 원료로 추가됨에 따라 곤충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 식품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13일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진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

전북중기청, 전주 모래내시장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13일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진행했으며, 오는 14일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지역별 참석 기관을 달리해 분산 진행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힘들어하는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지역 경제의 안정과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실시한다.

13일 장보기는 전북중기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이노비즈협회 전북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중소기업융합 전북연합회 등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에서 참여했고 참가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전통시장 물품 구매 후 마무리했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전북중기청 및 전북기계공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익산센터,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창조

경제혁신센터, 기술신용보증기금 익산지점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을 방문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을 위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윤종욱 청장은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코로나 이후 위축된 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풍성함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며 “모든 전통시장이 코로나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 추석을 맞아 더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에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농식품 우수 연구개발제품 공공조달 판로 지원한다

농식품부, 28일부터 신청접수 제품 지정시 ‘구매목표제’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조달의 수의 계약 등 혜택이 제공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13일부터 공고하고, 오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해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으로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거쳐 지난 8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했고 이를 근거로 농식품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모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센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최근 5년 이내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1차 발표평가(평가위원회), 2차 현장평가, 3차 종합심사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10월 12일까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fs.go.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중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통해 농식품분야 우수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초기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고, 민간의 기술혁신·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농식품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aT, 농수산식품 유통 강사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 농식품유통교육원은 4차 산업혁명 등 최신 이슈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오는 10월 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농수산식품 유통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유통, ESG 경영 3개 분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면 별도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전문강사는 1차와 2차 평가과정을 거쳐 총 9인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자에게는 개인별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고 농식품유통교육원 전문강사 인력풀에 등록돼 2022년도 해당 전문분야 강의의 시·우대에 초빙된다.

서류접수는 농식품유통교육원 이메일(agroedu@at.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모든 응모자는 1차 서면평가를 위한 강의계획서와 강사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1차 평가 선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중 시범강의 영상으로 2차 평가를 거쳐 11월 초에 전문강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농식품유통교육원 배대근 원장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이슈분야의 강의를 이끌어낼 열정적인 전문강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강사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 /이영태 기자



전북농협, 농협육성 여성조직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 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는 13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시·군 대의원 2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3분기 정기 이사회를 연 가운데 우리농산물로 만든 송편을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정성어린 손길, 따뜻한 추석”

전북농협, 농가주부모임 등과 소외계층에 송편 나눔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농협육성 여성조직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회장 이정자), 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회장 정명숙)는 13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시·군 대의원 2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3분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진행 사업에 대해 돌아보고 농업·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회원들이 우리농산물로 직접 송편을 만들어 소외계층 400여 가구에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전북농협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요즘이지만 농가주부·고향주부 회원분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더해져 다가오는 추석은 더 따뜻하고 풍성해질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회원들의 봉사활동에 전북농협이 함께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가주부모임 이정자 회장은 “송편 나눔행사를 통해 명절이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홀몸어르신들의 소외감이 덜어졌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와 (사)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 농번기 증식봉사, 농촌일손돕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다문화 여성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상의, 도내 복지지원시설에 쌀 후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13일 대한적십자사전북지사의 추천을 받아 600만원 상당의 백미를 도내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매년 설과 추석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추석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구입해 선내몽실쌀사 회복지원 등 4개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윤방섭 회장은 “2년여 계속되고 있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13일 대한적십자사전북지사의 추천을 받아 600만원 상당의 백미를 도내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와 새고창로타리클럽(회장 백남중)은 최근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ESG경영실천을 위한 사회봉사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전 고창-새고창로타리, ESG 경영실천 ‘맞손’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지사장 기장호)와 새고창로타리클럽(회장 백남중)은 최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ESG경영실천을 위한 사회봉사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공동 개발, 지역사회 내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연계·지원 및 후원처 발굴, 후원물품 배분 등의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 기장호 지사

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위주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봉사수요 확보에도 기여,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새고창로타리클럽 백남중 회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과 동행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역 내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국전력공사 고창=김영식 기자

LX, 올 하반기 전문인력 10명 채용

연구직 등 총 9개 분야 내달 5일까지 원서접수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신사업 추진 및 공적 역할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공개 모집했다.

모집 분야는 연구직, 전문경력직, 사 이클선수단 트레이너 등 총 9개 분야로 10명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연구직과 전문경력직은 인성검사가 추가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LX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분야별 중복 접수는 불가능하다.

이 외에 지원자격 기준, 평가기준,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X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인사처(063-906-1596)로 연락하면 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오에리 경영지원본부장은 “국토정보 분야의 한국판 뉴딜 완성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며 “능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새만금 철린지 테마파크 조감도

새만금 관광명소화사업 내달 우선협상대상 선정

제3차 공모 접수 마무리

새만금개발청(청장 안충모)은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를 색다른 명품 방조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관광명소화사업의 제3차 공모 접수를 마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광명소화사업을 통해 조성이 끝났거나 매입이 완료된 용지를 대상으로 관광과 휴양을 제공하는 수준 높은 관광시설을 유치해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새만금개발청이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사업제안서를 받은 최초 제안기업인 계성건설(주)(대표 박종원)과 ㈜에이알(대표 유정기)이 컨소시엄(연합체)을 구성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컨소시엄이 제안한 새만금 철린지 테마파크는 국제적 수준의 리조트 호텔과 테마파크, 애견호텔과 클럽핑크, 문화공연장과 대관람차 등의 관광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9월 중에 접수된 제안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10월 중에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협약 체결과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명소화사업과 함께, 1호 방조제 일대에 브이알(에이알(VR)AR) 테마파크, 새만금 홍보관, 국립새만금근적박물관 등이 완공되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동서도로 개통과 남북도로 건설, 수변도시 조성 등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관광사업도 정주형 테마마을과 해양레저사업 등의 공모가 진행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조속히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